

# 가을

'주홍글자'와 인생론

# 주홍글자

A

명작의 계보 : 거울 불스토이 : 주홍글자

00

## 시대적 배경으로 보는 주홍글자

### 배경

주홍글자는 1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7세기가 되자 유럽은 이성을 찬양한 계몽사상이 싹트게 되며 이 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지를 역설하는 새로운 종파인 청교도의 등장 가능하게 하였다. 17세기 미국으로 이민 온 청교도들은 화려하고 호사스런 사치를 멀리하고 청빈하고 검소하며 엄격한 계율을 지키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향락적인 것은 배척하였으며 심지어는 소설, 연극, 음악 등도 금지하였다. 즉 개인의 성실성이나 근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본성이나 존엄성을 억압하였던 것이다. 청교도 시대는 성경중심 신앙과 금욕주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적인 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시대적 특징도 있다.

## 소설 전개로 보는 헤스터

### 발단

간음죄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되고, 처형대 앞에 섰다. 헤스터의 가슴에는 간음죄 adultery를 상징하는 주홍색 글자 A가 옷감으로 꼼꼼하게 붙어 있었다. 사람들의 정죄와 차디찬 경멸의 시선, 그리고 일평생 자신의 가슴에서 떼 수 없는 A... 헤스터는 매일이 짙은 암흑과 같았다.

### 전개

펠과 함께 길을 걸을 때 덤스데일 목사와 여러 번 눈이 마주친다. 목사와 몇마디씩 대화를 주고받는다.

### 위기

덤스데일 목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펠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지만 마을 주민들로부터 끊임 없이 정죄를 받는다. 하지만 헤스터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선행을 베풀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 의 것을 나눠주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집에 방문하고, 돌림병이 돌 때 나서서 사람들을 도왔다)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씻길 것 같아서였다.

### 절정

덤스데일 목사와 다른 곳으로 도망쳐서 살 것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만다. 그 후 처형대 위에서 자신 때문에 죄책감을 못 이기고 죽어가는 덤스데일 목사의 마지막을 바라본다. (덤스데일 목사가 마지막에 펠에게 입맞춤을 부탁했을 때 펠이 말을 들어줬다.)

### 결말

자신이 죄책감으로 힘들었던 시간만큼, 자신의 죄를 뉘우친 시간만큼 헤스터는 더욱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섬겼다. 마을 사람들 중에 헤스터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헤스터를 찾아와서 조언과 위로를 받았고, 헤스터는 그들을 언제나 맞아주고, 소통하며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힘을 북돋워 주었다.

## 성경구절과 본문으로 보는 헤스터

### 성경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 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3-24)

### 본문

p243. 그녀는 지금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단 한 번도 자신의 단호하고 슬픈 눈을 돌린 적이 없었다. 하늘도 그녀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이 창백하고 나약하고 죄 많고 슬픔에 시달리는 남자의 찌푸린 얼굴만큼은 헤스터도 참고 살 수가 없었다!

p200. 가난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 가진 것도 별반 없으면서 그녀만큼 선뜻 내놓는 사람도 없었다. 마을 전체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재난이 닥치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재 빨리 찾아냈다. 그녀는 근심으로 어두워진 집을 손님이 아닌 당연한 식구인 양 찾아갔다. 마치 그 집안의 침울한 어스름이 그녀에게 이웃과 교체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 같았다. 병자가 괴로워하는 마지막 순간에 주홍 글자는 시간의 경계를 가르며 어렵פות한 빛을 던졌다. 헤스터의 따뜻하고 푸근한 성품이 여실히 드러났다. 누구나 마실 수 있고 아무리 마셔도 결코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인정의 샘물이었다. 치욕의 징표가 달린 그녀의 가슴은 배개가 필요한 이들이 머리를 누일 푸근한 배개가 되어 주었다.

## 소설 전개로 보는 딘스데일

### 발단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간음죄를 저지른 헤스터를 감싸 준다. 헤스터에게 팔을 보육원으로 보낼 것을 강요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헤스터와 팔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우연이었는지 자꾸만 헤스터 옆에 나타나고, 헤스터와 팔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다.

### 전개

항상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는 높은 지위의 목사였지만 날이 갈수록 몸의 건강이 나빠진다. 자신의 주치의로 들어와 같은 집에 함께 사는 칠링워스를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항상 칠링워스에게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낀다.

### 위기

헤스터로부터 칠링워스가 헤스터의 남편이었다는 사실과 그가 자신의 주치의로 들어온 것이 자신의 양심을 건드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파멸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유였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 절정

헤스터와 함께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시도하지만 칠링워스에게 방해를 받고 실패한다.

### 결말

처형대 앞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다. 딘스데일 목사는 죽어갈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헤스터의 간음 상대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우선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죄를 밝힌다.

## 성경구절과 본문으로 보는 딘스데일

### 성경구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요일 1:9)

### 본문

p239. "내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이상처럼 떠받드는 존재의 실체가 얼마나 흉악한지 알겠는데, 그런데도 위안이 될 것 같소, 헤스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나와 진짜 내가 그렇게나 달라서 나는 비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오!"

p248.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면 진작 평화를 찾았을지도 모르오. 아니, 애초에 평화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겠지! 그러나 내 처지가 이렇다 보니, 내가 가진 본래의 뛰어난 능력이 무엇이든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혼을 괴롭히는 대항자로 변해버렸소. 헤스터, 나는 정말 비참하오!"

## 소설 전개로 보는 칠링워스

### 발단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와 바람을 피운 헤스터를 용서하지 못하고 헤스터에게 계속해서 복수할 것을 알린다.

### 전개

딤스데일 목사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로 딤스데일 목사의 집에 들어간다. 딤스데일 목사의 건강이 왜 나빠져가는지, 딤스데일 목사의 심리 상태가 대략 어떤지 알고 있으며, 딤스데일 목사의 정서가 왜 불안한지 알고 있지만 계속 딤스데일 목사에게 직접 속마음을 얘기하도록 유도하며 양심을 건드린다. 딤스데일 목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며 더욱 악랄하게 딤스데일 목사를 괴롭힌다.

### 절정

헤스터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계속해서 복수하고 싶어하지만 헤스터가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헤스터로부터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권면을 듣자 분노하며 괴로워한다. 헤스터와 딤스 데일 목사가 함께 다른 나라로 가려는 계획을 알고서 그들을 방해한다.

### 결말

처형대 앞에서 모든 죄를 실토하고 죽는 딤스데일 목사를 보고 충격을 먹고, 삶의 허무감과 회의감을 느끼며 몸부림친다. 칠링워스는 딤스데일 목사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한다.  
"결국 날 벗어났군! 내게서 벗어났어!"

## 성경구절과 본문으로 보는 칠링워스

### 성경구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19-20)

### 본문

p211. 사람이 적당한 기간 동안 악마의 임무를 맡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악마로 변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현저한 증거였다. 이 불행한 인간이 이렇게 변모하게 된 것은 지난 7년 동안 고통으로 가득 찬 누군가의 마음을 끊임없이 분석하며 거기서 기쁨을 얻고, 자신이 분석하고 흠족하게 바라본 그 불같은 고통에 기쁨을 붓는 데 열중했기 때문이었다.

## 우리 인생 속 주홍글자 #1

### 박예담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밀하고 친숙한 존재이기도 하다. 벗어나기 매우 힘들다. 죄가 있어서, 나 자신이 죄여서 고통받는 시간은 그 사실을 느끼고 깨달을 수록, 딜레마에 빠진 듯 절망적이기만 하다. 헤스터를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과연 죄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의 주홍글자를 지니고 있다. 가슴 위의 주홍글자가 눈에 보이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죄의 낙인은 피할 수 없다. 인간에게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죄, 죄의 무게와 심각성, 두려움은 인간에게 크게 작용한다.

### 박초연

뱀에게도 진실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뱀에게 정직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뱀에게는 진실과 거짓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정직하다는 것은 동기가 순수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주홍글자를 읽으며 칠링워스 보다 헤스터프린이 더 정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헤스터프린의 순수한 동기 때문일 것이다. 정직은 진실만 존재하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 윤창민

주홍글자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죄에 대한 자기 집중인 것 같다. 성경 말씀에 '자가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티끌은 잘 본다'라는 말씀이 있다. 정죄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남에게 너무 많이 집중하게 된다. 남이 무엇을 하는지 남이 무엇을 느끼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의 신앙은 어떤지 등등. 남에게 너무 신경을 쓴다. 하지만 그렇게 삶의 시선을 타인에게 맞추어서는 절대 성장해낼 수 없다. 정작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회개를 강요할 때, 그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헤스터 프린의 주홍글자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헤스터 프린에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 우리 인생 속 주홍글자 #2

### 이혜민

종잡을 수 없는 칠링워스의 복수심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보여준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분께 복종할 능력이 없다.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죄인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기쁨을 고귀한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할 수 없다. 본인의 행동을 악마의 손에서 낚아챈 것이라 이야기하며 죄 또한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기색 없는 칠링워스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게 되어버린다.

### 정다운

서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간음죄를 저질렀고, 죄를 짓는 동안에는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이성과 도덕성이 완전히 가려졌겠지만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이야기의 끝까지 뒤흔어놓는 몸과 영혼이 피폐해져 갔다. 헤스터 또한 목사 곁에서 점점 파멸을 향해 가는 목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했다. 이만큼 죄는 사람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추악한 것이다. 죄는 남보다 잘 되고자 하는 욕심, 남을 짓밟고 이기려는 욕심, 나만 행복하고자 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고자 하는 욕심, 나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고, 커져간다.

### 정한비

하나님께서서는 죄로부터 깨끗한 분이시며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는다면 과연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죄인임을 인식한 순간 하나님을 찾게되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한다.

##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정다운

불행의 씨앗은 죄와 욕심, 그리고 쓴 뿌리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과 이 세 가지는 복잡하게 섞여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슬픔, 분노, 근심, 절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죄와 욕심과 쓴 뿌리는 무엇이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해결법은 무엇일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첫 번째로 죄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헤스터 프린은 사랑한 적 없는 늙은 남편을 두고, 젊은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 그리고 목사와의 사이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간음 죄를 뜻하는 ‘주홍색 A’ 글자를 평생 가슴에 달고 살게 되었다. 헤스터 프린은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로 부터 정죄를 받고, 자신의 존재와 마음과 삶에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어 고통스러워했다.

‘이제는 현재의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미래의 힘을 빌릴 수 없다. 날마다 시련이 따를 것이고, 오늘처럼 참고 견디기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쓰라린 일이 될 것이다. 이어진 먼 미래의 나날들도 그녀에게 여전히 똑같은 짐을 지운 채 애써 나아가게만 할 뿐 결코 그 짐을 벗어던지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날이 가고 해가 거듭될수록 수치의 더미 위에 하루하루의 불행이 겹쳐 쌓일 테니 말이다. 그 세월 동안 그녀는 - 죄 많은 정욕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증거라며 손가락질 받는 일반적인 상징이 될 것이다.’

‘징표를 손으로 가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참았다. 낯익은 시선 또한 그 나름의 고통을 주었다.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은 참기 힘든 것이었다. 요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주홍 글자에 쏘리는 인간의 눈을 의식할 때마다 헤스터 프린은 끔찍한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그 부위는 결코 무감각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날의 고통과 더불어 점점 더 예민해지는 듯했다.’

헤스터가 지은 간음 죄의 결과는 본문에 표현된 대로 오랜 시간 고통

의 멍에가 되었고, 떨쳐낼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 잠언 16장 2절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의 겉모습과 그가 가진 타이틀, 환경, 지위, 업적에 죄가 가려지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고, 내세울 수 있는 타이틀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가 낱알이 다 드러난다.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죄는 몸과 마음을 아주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며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죄는 잠시 죄의 결과를 망각하게 만들고 죄를 흥미롭고 쾌락(행복의 모조품)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하지만 죄는 결과적으로 언제나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는 괴로움과, 혼자가 된다는 공허함과 외로움,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 속박됨으로써 오는 고통... 죄는 헤스터와 딘스데일 목사에게도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간음을 저질렀고, 죄를 짓는 동안에는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이성과 도덕성이 완전히 가려졌겠지만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이야기의 끝까지 딘스데일牧사는 몸과 영혼이 피폐해져 갔다. 헤스터 또한 목사

결에서 점점 파멸을 향해 가는 목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했다. 이만큼 죄는 사람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추악한 것이다. 죄는 남보다 잘 되고자 하는 욕심, 남을 짓밟고 이기려는 욕심, 나만 행복하고자 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고자 하는 욕심, 나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고, 커져간다.

욕심은 인간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따라다닌다.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인간성과 최소한의 양심까지 버리게 만든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욕심은 강박증을 낳게 하고, 사람을 서서히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며 결국 욕심에 얽매이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욕심이라는 죄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매번 더 잘 되어보고자 하는 집착과 강박에 사로잡히며 삶이 불행해진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나도 수많은 종류의 죄를 지었다. 그 죄들은 모두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즐거운 것만 쫓았던 욕심, 쾌락을 우선으로 쫓았던 욕심,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심... 나는 그 욕심들이 날 옹아매고, 내 이성과 사고의 수준을 떨어뜨리며,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결국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언뜻 알면서도 그 죄들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리

고 그 욕심을 따라가려는 의지와 행동이 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내 영혼은 너무 피폐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다. 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다.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완벽하지 못할까 봐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렇게 욕심의 죄가 주는 괴로움에 깊이 빠져있을 때 다시 평안을 얻고 싶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불안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싶었고, 지켜온 강박증과 나 스스로를 억압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난 내 죄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완벽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노력을 시작했다.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난 여유 있고, 긍정적이고, 만족하며 사는 삶을 점점 더 배워가고 있다.

딤편데일 목사는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회개하지 못한 채 마음에 삭혀둔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며 헤스터에게 말한다.

‘내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존재의 실체가 얼마나 흉악한지 알겠는데, 그런데도 위안이 될 것 같소, 헤스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나와 진짜 내가 그렇게나 달라서 나는 비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오!’

고 뒤 헤스터가 딤편데일 목사에게 ‘당신이 참회하지 않았던가요?’ 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라고 말하자 딤편데일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회개는 전혀 하지 않았소! 회개를 했다면 신성을 가장한 이 옷을 진작 벗어 던지고 최후의 심판대에 앉을 때와 같은 모습을 인류에게 보여 주어야 했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오, 헤스터! 가슴에 주홍 글자를 버젓이 내 놓고 다니니 말이오! 내 가슴은 남모르게 타고 있소! 7년이나 세상을 속이는 고문을 겪은 뒤에야...’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면 진작 평화를 찾았을지도 모르오. 아니, 애초에 평화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겠지! 그러나 내 처지가 이렇다 보니, 내가 가진 본래의 뛰어난 능력이 무엇이든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혼을 괴롭히는 대항자로 변해버렸소. 헤스터, 나는 정말 비참하오!’

딤편데일 목사는 금식과 고행, 무리가 되는 철야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하며 죄를 용서받으려고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았다.

‘그렇듯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하며 스스로를 고문했지만 그의 몸과 정

신은 정화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 고린도후서 7장 10절

두번째로 상처와 쓴 뿌리는 무엇일까? 쓴 뿌리는 주로 가정 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진한 마음의 상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쉽게 치료되지 않고, 쉽게 잊혀지지 않으며, 끈질기게 마음 가운데 깊은 뿌리로 남아 마음을 괴롭게 하는 상처이자 가정 안에, 사람 간에 불신과 미움을 낳는 무서운 것이다. 가정 안에서는 상처가 있어도 외면한 채 꺼내지 않고 살 때가 많다. 가정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상처는 일부러라도 치료되어야 하고, 쓴 뿌리는 반드시 뽑혀야 한다. 칠링워스도 그런 쓴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지만 아내 헤스터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바람을 피워 간음 죄를 저지른 죄인이 되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장 2절의 말씀이 칠링 워스의 상한 마음과 비슷할 것이다. 칠링워스는 헤스터의 간음 상대인 딘스 데일 목사의 주치의로 들어가 자신의 정체는 밝히지 않으면서 날마다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딘스 데일 목사의 양심을 건드리며 고통을 준다.

‘사람이 적당한 기간 동안 악마의 임무를 맡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악마로 변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현저한 증거였다. 이 불행한 인간이 이렇게 변모하게 된 것은 지난 7년 동안 고통으로 가득 찬 누군가의 마음을 끊임없이 분석하며 거기서 기쁨을 얻고, 자신이 분석하고 흡족하게 바라본 그 불같은 고통에 기쁨을 부는 데 열중했기 때문이었다.’

칠링 워스는 딘스데일을 미워해서 딘스데일을 나락까지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행동을 한다. 사람은 이렇게 최악에 가득 차 있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를 매장시킬 수 있을 만큼 죄를 짓는다. 성경에서는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 사람을 살인했다고 말하는데 그 말처럼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뱀속 깊이 죄를 가진 죄인이다. 칠링워스는 헤스터와 딘스 데일의 불건전한 행동을 판단하고, 딘스데일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과연 그럴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을까? 복수와 파멸을 만드는 악마로부터 희열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 죄로 가득한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이 세상의 가장 완벽하고 완

전한 행복을 가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이 세상 어디서도 절대 줄 수 없는 행복이다. 또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쌓인 모든 상처를 이기게 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 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 장 18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아픔을 이 세상 누구보다 긍휼하게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기에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며 증오와 상처에 눈먼 자의 눈을 다시 여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복음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아픔을 이 세상 누구보다 긍휼하게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기에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며 증오와 상처에 눈먼 자의 눈을 다시 여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복음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

세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 회개란 잘못된 죄를 발견하

고 선한 길로 돌아켜서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왜 죄를 회개해야 할까? 죄는 가까운 타인에게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죄를 밝히고 나서야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죄를 밝히기 직전과 죄를 밝힐 때는 괴롭고, 수치스럽고, 몸이 뒤틀리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죄를 털어놓음으로 인해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그 경험은 떠올릴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하다. 딤편스데일 목사도 사람들에게 죄를 털어놓았으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임종 때처럼 몸이 말라가며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딤편스데일 목사는 죄를 감춘 채 현재 누리고 있는 자신의 지위 때문에 양심이 가려져서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평안을 주는 죄 사함을 끝내 받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죄의 멍에와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고민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통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선한 쪽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 죄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죄가 달고 쾌락을 주는 것이라고 속인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아주 대적하지 않는 한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 속에서 죄가 활개를 치고, 죄로부터 상처와 쓴 뿌리가 자란다. 죄는 사람에게 자존심으로 접근하고, 쾌락적인 것으로 접근했다가 그 사람을 서서히 몰아매서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까지 이르도록 만들며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가져오는데 그 죄와 쓴 뿌리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사람들은 죄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양심에 걸려서 죄를 멀리하고 싶어 하지만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가려면 회개가 필요하다. 미움을 버리려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불안함과 분노를 버리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쓴 뿌리와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무엇보다 인간이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박예담

인생을 주홍글자로 보는 것은 조금 너무나 일이다. 주홍글자는 같은 인간이 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 내면의 모순을 놀라울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수업 중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명작과 성경의 본질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명작은 자신을 향한 적나라한 탐구와 자기 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타인 통찰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는 그만큼 자신도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섭고 놀라운 글에 내 인생을 투영해 봐야 한다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책을 읽으며 주홍글자의 메인 테마는 ‘인간의 죄’라고 생각했다. 보통

‘죄’는 단어에서 부터 오는 거부감과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때문인지 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계속해서 깊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 주홍글자를 읽으면서 인간의 죄와 또 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죄인은 도덕적 죄를 지은 사람들을 뜻한다. 하지만 진짜 ‘죄’는 무섭도록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쩌하나 우리는 나이나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9)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도 없다.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한 것과 같다.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밀하고 친숙한 존재이기도 하다. 벗어나기 매우 힘들다. 죄가 있어서, 나 자신이 죄여서 고통받는 시간은 그 사실을 느끼고 깨달을 수록, 딜레마에 빠진 듯 절망적이기만 하다. 헤스터를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과연 죄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모두가 자신만의 주홍글자를 지니고 있다. 가슴 위의 주홍글자가 눈에 보이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죄의 낙인은 피할 수 없다.

인간에게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죄, 죄의 무게와 심각성, 두려움은 인간에게 크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주홍글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마냥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죄를 짓는 동시에 죄책감도 가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죄에 민감하면 민감할 수록 죄에서 오는 고통은 심하다. 책에서 디스데일 목사 또한 죄로부터 오는 2차적 고통에 사로잡혀 결국 헤스터의 드러나는 주홍글자보다 더욱 끔찍하고 섬뜩한 자신만의 주홍글자를 가지게 된다. 주홍글자라는 처벌이 인간의 양심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책에서 말하는 바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무언가 잘못을 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도덕적 죄의 정도와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주어진 벌로 만족하고 안심하는 걸 좋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로마서 13:5)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14)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할 뿐이다. 또한 우리가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 죄를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뿐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복을 받는다. 세상에서 얻는 쾌락으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한 고통을 벗어버리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자체가 고통인 복수하려는 의지도, 증오하는 마음도 이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었고, 때문에 죄에 민감했던 딘스데일 목사에게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왜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한 인간이 죄에 발이 걸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다음 스텝으로 가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딘스데일 목사는 당연히 회개 기도를 몇 번이고 드렸을 것이다. 지금 내가 딘스데일 목사는 넘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평안을 얻지 못한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딘스데일 목사 누구보다 자신의 죄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 모습이 모순적이게도 답과 의문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그들은 마땅히 치려야 할 치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을 섬기는 열정, 이런 고결한 충동이 그들의 가슴속에서 사악한 동거인과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명작 속 등장인물들이 아닌 명작 밖 우리들까지도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충동을 빚어내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를 알고 성장하기 위해 자기 통찰과 해부를 계속해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 용기 있게 맞선다

윤창민

주홍글자는 간음으로 인해 몸에 주홍글자 A를 달고 다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너대니얼 호손이라는 작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죄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풀어나간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

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누가복음 6:37~38)

주홍글자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죄에 대한 자기 집중인 것 같다. 성경 말씀에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티끌은 잘 본다’라는 말씀이 있다. 정죄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남에게 너무 많이 집중하게 된다. 남이 무엇을 하는지 남이 무엇을 느끼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의 신앙은 어떤지 등등. 남에게 너무 신경을 쓴다. 하지만 그렇게 삶의 시선을 타인에게 맞추어서는 절대 성장해낼 수 없다.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 더욱 깊이 고민하고 더욱 깊이 생각해야만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정작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회개를 강요할 때, 그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헤스터 프린의 주홍글자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헤스터 프린에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언 28장 13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장 14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장 8절-9절)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죄를 맞이하는 태도'이다. 헤스터 프린, 딘스데일 목사 모두 크고 작은 죄를 지었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러서 두 명의 운명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죄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헤스터 프린은 죄 앞으로 용기있게 나아갔다. 내가 잘못했다는 과거를 굉장히 용기있게 인정하며 자신의 죄스러운 운명을 받아들였다. 주홍글자 A를 벗어던지지 않고 가슴에 달고 다녔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은 과거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죄된 운명을 바꾸어냈다. 하지만 딘스데일 목사와 칠링워스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딘스데일을 먼저 살펴보자. 딘스데일은 자신의 죄된 운명을 마주하기 두려워했다. 피하려고 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죄된 모습은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딘스데일만의 모습은 아닌듯하다. 이와 같은 모습 역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딘스데일과 헤스터 프린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실 말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으나마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마주하는 것이, 자신의 아쉬운 부분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마주하기 싫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이 기분 나뻐 기에, 상황이 나뻐 기에, 어쩔 수 없었기에 등등. 하지만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이겠는가?

'증오는 갈등을 불러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습니다'(잠언 10장 1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장 31절-32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야고보서 1장 19절-20절)

세 번째로 느낀 점은 “분노와 증오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하는 점이다. 칠링워스 노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책의 관점이 헤스터 프린이기 때문에 칠링워스가 굉장히 악한 면모를 많이 보여준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칠링워스 역시 굉장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었고 빠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점 역시 많이 보여줬다. 헤스터 프린과 딤스데일과의 불륜이 있기 전까지 가족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딤스데일과 헤스터 프린의 불륜이 이 칠링워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고달픈 인생으로 만들었다. 복수심에 휩싸이게 되고 그 복수심이 결국 칠링워스를 고달프게 만들었다. 과연 칠링워스의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일까? 만약 이 소설의 조명이 헤스터 프린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고 칠링워스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면 소설의 다른 면이 굉장히 부각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삶이라고 해서 칠링워스와 같은 처지에 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 역시 아니다. 우리 삶 역시 불확실한 미래를 걷고 있는 나그네와 같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칠링워스가 헤스터 프린의 모습처럼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작가의 답을 알 수는 없는 것 같다. 내 생각을 적어보자면 감정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감정 자체는 모두 존귀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감정을 대하는 태도는 전

적으로 우리의 영역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어떤 상황을 보며 분노를 느끼거나 화를 가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만을 준 것이 아니다. 분노를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미움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등등.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다. 칠링워스 역시 누구나 공감할 수 없을만큼 억울한 상황이며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미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칠링워스는 그런 감정들을 삶, 그 자체로 삼았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기에 칠링워스는 그렇게 분노 그 자체의 삶을 살게 되었다.

## 주홍글자로 본 인간의 죄성

('내가 바뀌는 시간' 강연 원고)

이혜민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신앙으로 내가 바뀌는 시간을 '타락' 파트를 맡게 된 이혜민입니다. 이 시간에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그 죄의 형태는 어떠한가요. 너대니얼 호손의 장편소설 '주홍글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배경은 청교도 시대입니다. 청교도 시대는 성경 중심 신앙과 금욕 주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특징으로 성적인 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었는데요. 아름다운 외관의 여인으로 소설 속 주인공 헤스터는 왼쪽 가슴팍에 A자를 달고 다닙니다. 간통, adultery의 첫 글자를 상징하

는 A는 그녀의 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는 '펠'이라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 달린 주홍글자 A가 살아있는 셈이죠. 헤스터는 간음한 마을에서 간음 죄의 산물과 같은 딸아이를 살게 됩니다. 욕하며 그녀를 멸시하기도 하고 벌이 약하다며 주홍글자 A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웅성입니다. 상대 남자를 마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마을의 촉망받는 젊은 목사 딤스데일은 헤스터 프린이 주홍글자를 달고 다니며 배척당하고 죄의 살아있는 예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를 은근히 감싸듯 이야기합니다. 헤스터의 주홍글자에 한몫을 한 인물이 바로 딤스데일 목사였기 때문이죠. 바닥까지 드러나 처절하게 죄 앞에 선 헤스터 프린, 고백하지 못한 죄로 인해 영이 썩어가는 딤스데일, 미움으로 악을 낳고 헤어 나오지 못한 헤스터의 전남편 칠링워스. 이 세 인물을 통해 우리 죄를 이야기해 봅시다.

청교도 시대,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 헤스터 프린과 촉망받는 젊은 목사, 딤스데일. 젊은 두 남녀의 불륜은 주홍글자가 되었다. 그렇게 한 여인의 왼쪽 가슴팍에 자리 잡았고 그들의 죄는 '펠'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를 살아 숨 쉬게 된다. 이들에게 복수심을 품은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로저 칠링워스. 헤스터 프린의 전 남편이자 딤스데일의 전남 의사로 그들의 피를 말리는 복수극이 시작된다.

## 헤스터 고백

나도 당신이 안됐어요. 현명하고 올바른 사람이 증오 때문에 악마로 변해 버렸으니까요! 당신 속에 자리한 악마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인간이 되어 보지 않겠어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용서하고, 더 큰 징벌은 벌을 요구하는 신께 맡기세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 모두 악의 이 어두운 미궁을 헤매 다니면서 우리 모두 악의 이 어두운 미궁을 헤매 다니면서 우리가 뿌려 놓은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데, 그분에게나 당신에게나 나에게나 이로울 게 뭐겠어요? 아, 그게 아니군요! 큰 해를 입은 것은 당신이요 용서하는 것도 당신 뜻에 달렸으니, 당신한테는, 당신한테만큼은 이로울지 모르겠군요. 그 유일한 특권을 포기하겠어요? 그 귀중한 은혜를 거절하겠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죠. 구약성경에서는

“범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왕상 8:46)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시 143:2)

라고 증언합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인간의 알팍한 도덕성을 꿰뚫어보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전 7:20)

고 선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인간의 본성을 유심히 관찰하고 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사 53:6)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악합니다. 마음에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니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투성이고 그런 이들이 모여 사는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저는 종종 선한 것 하나 없는 세상에 의인인 척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내가 악하다는 걸 알면서 타인의 죄를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들의 죄가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의 죄를 감추려 합니다. 악하고 악한

모습을 숨기려 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상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속에 헤스터가 있지는 않은지요. 모두가 죄인인 마당에 죄인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헤스터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찰링워스 고백

헤스터, 9년 전의 나를 기억하오? 그때도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있었소. 그것도 느지막한 황혼기였지. 그러나 나 자신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충실하게 시간을 바친, 진지하고 학구적이고 사려 깊고 조용한 인생이었소. 나만큼 평화롭고 무해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거요. 것처럼 솔한 은혜를 입은 삶도 많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그런 나를 기억하고 있소? 당신은 차가운 사람으로 여길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난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소? 친절하고 진실하고 올바르게 따뜻하진 않아도 변함없는 애정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소?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소? 내가 무엇인지는 이미 말했거요! 악마라고 말이오! 누가 날 그렇게 만들었소? 그러니, 헤스터! 그만! 그만! 내겐 용서할 힘이 없소. 당신이 말한 그런 힘 따윈 내게 없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지난날의 믿음이 되살아나 우리의 모든 행동과 괴로움을 설명해주는 구려. 첫발을 잘못 디더 당신은 악의 씨를 뿌렸소. 그러나 그 악의 씨

가 이후로는 어두운 필연이 되어 버렸지. 내게 잘못을 저지른 당신을 세상 사람들은 죄반을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착각이오. 악마의 손에서 그 임무를 남아채긴 했지만 나 또한 악마 같은 사람은 아니오. 이건 우리의 운명이오. 검은 꽃은 피는 대로 그냥 두시오! 이제 당신은 가던 길을 계속 가고, 그자에 대해서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도덕적 무능력과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다.

이제는 종잡을 수 없는 찰링워스의 복수심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복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 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기쁨을 고귀한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행동을 악마의 손에서 남아채긴 것이라 이야기하며 죄 또한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기색 없는 찰링워스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진리를 미워하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로마서 1장18절)와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 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욥기 21장 14,15절)

에서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한복음 3:19-20).

타락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으며 본래에 악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빛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그분과 동행하기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활하며 종종 느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되는 것을. 하나님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타인과 무

너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기에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된다는 걸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딤스데일 고백

헤스터, 당신은 평화를 찾았소? 하... 내 처지가 이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달리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소? 만약 내가 무신론자라면,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면, 천한 짐승 같은 본능을 지닌 비열한 놈이라면 진작 평화를 찾았을지도 모르오. 아니, 애초에 평화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겠지! 그러나 내 처지가 이렇다 보니, 내가 가진 본래의 뛰어난 능력이 무엇이든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혼을 괴롭히는 대항자로 변해버렸소. 헤스터, 나는 정말 비참하오! 사람들이 날 존경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어 더 비참하오.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나는 믿지 않소. 그렇게 믿는다면 망상에 지나지 않을 거요. 나 같은 타락한 영혼이 어찌 다른 영혼을 구제할 수 있단 말이오? 이런 더럽혀진 영혼이 어찌 다른 영혼을 정화시킨단 말이오? 사람들이 날 존경한다고? 차라리 경멸하고 증오했으면 좋겠소! 설교단에 서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인 양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눈을 마주하고, 진실을 갈구하며 내 말을 오순절에 내린

하늘의 음성인 양 듣고 있는 나의 양 떼를 본 다음 내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존재의 실체가 얼마나 흉악한지 알겠는데, 그런데도 위안이 될 것 같소, 헤스터?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와 진짜 내가 그렇게 달라서 나는 비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오! 사탄도 그걸 보고 비웃을 거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고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변하지 않는 내 삶에 실망하지 않나요? 새 생명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전과 동일한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 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욥기 9:29-31)

늘상 죄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 씀하십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 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예레미야 2:22)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예레미야 13:23)

나는 변하지 않는 삶에, 찢기지 않는 죄성에 답답해하고 있나요? 나는 어떻게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 앞에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나요? 나는 본래에 죄인된 존재 사실에 절망하나요? 딘스데일 목사와 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처절하게 인정하고 깊고 깊은 바닥을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3:23-24)

딘스데일 목사가 힘들었던 것은 본인의 위선적이라 생각 드는 행동 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나간 것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점점 말라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헤스터의 왼쪽 가슴팍에 달린 A. 죄를 상징하지만 죄를 인정한 처절한 삶 가운데 일어난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왠지 십자가와 닮았습니다. 우

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전에 내가 지었고 오늘을 살아가며 짓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 사함, 즉 구원, 새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죄를 안고 처절히 절망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의 손은 부정하고, 우리의 마음은 순결하지 못합니다.(렘17:9)

태어나면서부터 결길로 치우쳤고,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온갖 거짓을 토해냅니다.(시 58:3, 마 15:18-19)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더러워서, 악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실제로 의로워지는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법률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자에 관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

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된다.(요일5:11)

우리는 과연 선한 사람들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죄에 너무 깊게 빠져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정도로 죄에 무더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팍에 새겨진 A는, 우리의 몸에 새긴 십자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요. 마음에 새긴 십자가의 의미를 되뇌어 봅시다.



'내바시' 영상 바로가기

## 정직 어디있니?

박초연

정직이란 무엇일까. 정직은 마음이나 행동에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보며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거짓의 상징적인 동물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뱀을 이야기할 것이다. 특히 선악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뱀이라고 확신에 차 이야기할 것이다. 뱀에게는 두 갈래의 혀가 있다. 뱀에게 왜 두 갈래의 혀가 있는 걸까 어쩌면 한 입으로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말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닐까. 사실 뱀에게도 진실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뱀에게 정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뱀에게는 진실과 거짓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정직하다는 것은 동기가 순수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주홍 글자를 읽으며 칠링워스 보다 헤스터프린이 더 정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헤스터프린의 순수한 동기 때문일 것이다. 헤스터프린은 살아가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이에 비해 칠링워스는 자기 아내인 헤스터프린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남자가 딤스데일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 딤스데일에게 복수하려고 일부러 접근하여 죄책감을 느끼도록 정신적으로 고문한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으며 정직을 원했던 칠링워스는 오히려 인간 이하로 더 타락해버렸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던 헤스터프린은 죄를 범한 불완전한 인간에서 A를 극복한 평판 좋은 여성이 되었다. 이처럼 정직은 진실만 존재하며 순수한 동기가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직해야 할까.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는 정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직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우리의 정직은 사라지고 말았다. 즉 정직한 존재였던 우리가 거짓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신앙생활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존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성경에서는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यो, 흠 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  
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잠언 2:21-22)'

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 또한 정직한 사람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  
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망설이며 정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여보자면 정직해  
야 하는 이유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계에  
서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친구를 사귄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사  
랑할 때도,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에는 서로에 대  
한 신뢰 즉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정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  
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직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정직해질 수 있을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진실을 마주하기 어려운 두려움, 그 진실에는 그만큼 대가  
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어떤 인간이 정직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좋아  
할까 자신의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면 자책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것  
이다. 그래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은 널리 널리 알리고 자신의 정직하지 않  
는 모습은 숨기기 급하다. 하지만 그런데도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  
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보다 더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자

기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즉 진실이 알려지면 자기 모  
습이 사람들 앞에서 더 작아 보일까 두려워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해지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다.

또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똥  
똥한 사람에게 똥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정직한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입는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색하거나  
웃을 이상하게 입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말해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다. 하지만 똥똥한 사람에게 똥똥하다고 하는 것은 상처만 입을 뿐  
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마태  
복음 10:16)

라고 말씀하셨다. 말하면 상처가 되고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말하  
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린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누구나 죄를 마음에 품  
을 수 있고 또 누구나 무심코 쉽게 하는 거짓말과 행동이 있다. 나만 옳다  
고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타인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적도 있을 것이다. 하  
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시고 정직한 영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정  
직한 자의 편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신앙생활이란 정직을 회복하는 것

이다. 이것을 깨닫고 항상 정직하도록 내가 습관처럼 자주 하는 거짓말, 행동이 있지 않은지 나 자기 모습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정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울 뿐 말로만 정직하기는 정말 쉽다. 그렇기에 정직은 노력 없이는 안되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길 바란다.

## 그리스도인의 죄와 삶

### 정한비

주홍글자를 읽으며 절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주제는 '죄'이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깨끗한 분이시며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는다면 과연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죄인임을 인식한 순간 하나님을 찾게되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한다.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 뜨겁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감이 아닐까싶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

이 말씀에서의 회개란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 깊숙이 뉘우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죄와 아주 가깝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는 죄와 구별된 존재이다. 죄는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과 쾌락을 주지만 결국 우리의 내면을 파헤치게할 뿐이다.

'딤편스데일 목사의 건강은 현저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쇠약해졌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점점 수척해졌다. 목소리는 여전히 낭랑하고 감미로웠지만 쇠약의 징후처럼 우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조금만 놀라거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도 손을 가슴에 얹고 처음에는 얼굴을 붉혔다가 점점 창백해지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_p.151~152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결코 가볍게 내뱉을 수 없다. 딤편스데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였다. 그렇기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숨겨야했고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만큼 죄로부터 자신의 내면이 잘 가꾸어져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핍박과 진노를 감수하고서도 우리의 저 깊은속에 있는 죄까지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고난은 하나님 주신 진리의 고난일 것이며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시는 과정일 것이다.

십계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다. 하지만 정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여보자.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지않은 죄악이 아닐까싶다. 반대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는 생각이기도하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죄인취급할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랑을 사라져간다.

'헤스터 프린은 질서 없이 뒤따르는 근엄한 얼굴의 남자들, 그리고 몰인정한 얼굴의 여자들과 함께 그 관리를 따라 처벌 장소로 향했다. 오후 수업이 없어졌다는 것 말고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영문을 모르는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들뜨고 호기심에 차서는 헤스터보다 앞서 달리며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품에 안겨 눈을 감박이는 아기와, 그녀의 가슴에 달린 치욕의 글자를 보려고 자꾸만 고개를 돌렸다.' \_p.72~73

헤스터가 처형대에 올랐을 때 과연 그녀를 정죄하지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녀의 죄가 크다는 이유로, 그녀의 죄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죄는 잊은채 사람들은 헤스터를 정죄하기 바쁘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복음 8장 7절)

우리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항상 마음 속에 두고 살아야한다. 헤스터를 보고있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죄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헤스터를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우리는 죄인들끼리 모여있는 이 세상에 살고있다. 누구 하나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짓누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탄에 대적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한다.

명작의 강 앞에서 설레고, 그 강을 건너면서 고통스러웠으며, 건너고 난  
지금 목직한 울림이 있다.

앞으로 명작의 삶을 살아갈 우리 명작인들의 미래가 나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한다. -조영민

#### 참고 자료

인생론에 등장하는 도서 인용은 아래의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빨강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베리, 허밍버드)

아버지와 아들 (이반 투르게네프, 문학동네)

주홍글자 (너대니얼 호손, 열린책들)

부활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문예출판사)

#### 그리고 성경